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2월 22일(음력 1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566 호

가깝지만 먼 이웃 '사찰과 사하촌'

가까이 더 가까이…

범어사 27일 사하촌 주민 위한 템플스테이… '화합의 자리' 기대

'가깝지만 먼 이웃'. 사찰과 사하촌 주민과의 관계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사하촌 주민들을 포교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까이서 살다보면 이해관계에 부딪치거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범어사 아래 마을인 상마부락과 하마부락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범어사가 사하촌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묵은 갈등을 풀고 관계개선을 하자고 손을 내민 것이다.

범어사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 범어사 휴휴정사에 주민들을 초청해 '범어사 사하촌 주민 화합의 장 템플스테이'를 연다.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는 사하촌 주민들의 입장에서 비교적 손님이 없는 월요일을 택했다.

범어사가 손을 내밀자 상마 · 하마부락 상가번영회(회장 김광화)도 "하루 장사를 접고 참가하겠다"고 적극 화답했다. 그동안 사찰소유 토지를 임대해 장사를 해오거나 또는 사찰소유 토지 경계선 등의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관계로 만났던 사하촌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범어사 스님들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절 밑에서 살아왔지만 불교에 대해 제대로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대부분의 사하촌 주민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에 대해 새롭게 배우겠다"며 기대에 차 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는 대성 스님의 법문, 총무국장 경선 스님을 비롯한 소임 자 스님들과 사하촌 주민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사찰 예절 배우기, 발우공양, 108배, 108염주 만들기, 원효암 순례, 불무도 등도 주민들이 기대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상마 · 하마부락 상가번영회 김광화 회장은 "범어사가 사하촌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이번 템플스테이가 주민들이 범어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범어사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며 공생과 화합을 찾아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사하촌 주민과 소임자 스님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연수국장 혜수 스님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부터 감싸 안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기획했다"며 "하룻밤 절에서 머물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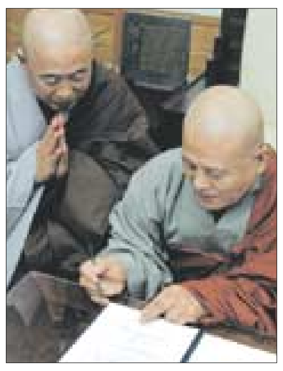
부산=천미희 기자

새 봄, 묵은 먼지 털어내고…

입춘과 우수가 지나면서 대지에는 봄바람이 가득하다. 묵은 먼지와 마음 속 번뇌를 털어내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다짐이 필요한 때다. 사진은 서울 봉원사(주지 환우)의 봄맞이 법당 청소. 사진=고영배 기자

군종특별교구 지원 만인동참 모금

지관 스님 서명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군종특별교구 지원을 위한 '만인동참'에 서명했다.

1만명의 회원이 한 달에 1만원씩 지원토록 하는 '만인동참'은 군포교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군종특별교구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군종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과 손양호 상임자문위원을 비롯해 각 부(실)장 스님들이 배석했다. 조계종은 10일 군종교구 지원을 위한 만인동참 모금에 주지 스님들의 참여와 신도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전국 사찰에 내려보냈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삼국유사' 특별전

23일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이 올해로 탄생 80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연세대 국학연구원과 (주)현암사가 손을 잡고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삼국유사 특별전–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4개 파트로 나뉘어 '전시A–삼국유사 들어가기:삼국유사가 걸어온 길' '전시B–삼국유사 만져보기:삼국유사 시대로의 시간여행 체험공간' '전시C–삼국유사 살펴보기:삼국유사 이야기' '전시D–삼국유사 둘러보기:사진과 HD동영상으로 보는 삼국유사' 등으로 구성된다. (02)724–011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해인사 고려대장경 '세계기록유산' 추진

문화재청 금년 사업 발표… 폐사지 조사도 실시

해인사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또한 전국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대회의실에서 2006년 주요 사업을 발표하고 지난 1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신청에 이어 금년중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묵은 동네' 돌담길과 남제주권역(마라도) 관광자원화 추진,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초 · 중학교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천연기념물보연구센터 개관,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지자체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평가 등 8가지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이날 2006년 주요 사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폐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폐사지가 많이 있는 경주지역의 옛사찰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통해 현황파악은 물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복원 및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지역의 폐사지 조사가 완성되면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대북교류 봄바람 불었다

조계종 신계사 단청 · 진각종 온실농장 등 추진

대북불교교류가 활짝 기지개를 폈다.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초청으로 각 종단을 비롯한 불교단체들이 2월 7일~12일 잇달아 방북해 북측과 합의한 결과물이 풍성하다.

조계종은 2월 24일부터 금강산 신계사 터 전각 복원 공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복원대상 건물의 명칭과 위치는 공사가 시작되는 2월 2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어실각의 규모와 형식은 원형 발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으며, 신계사 3층 석탑의 1층 옥개석 교체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단청공사도 4월 4일부터 시작된다. 단청장 김준웅씨의 진두지휘로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산신각 등에 단청공사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측은 단청 색채를 약한 녹색으로 조채(造彩)해 시공할 것을 합의했다. 불벽(포벽) 전면은 6위 불좌상, 벽체의 오른쪽은 문수 · 보현보살상으로, 왼쪽은 신장상으로 벽화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조불련과 함께 5월경 '제2차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금강산 신계사에서 개최한다. 또한 2월 24일 방한복 2000벌과 온풍기 3대, 냉장고 1대 등 2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중국 단둥을 통해 북한 신의주와 평양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진각종은 독자적인 교류사업으로 평양 인근 혹은 두루섬 지역에 협영농장의 전 단계로 10여 동 정도의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온실농장이 설치되면 조불련 측에서는 '진각농장' 등의 명칭을 달고 화훼, 야채재배, 유실수 생산 등을 통해 조불련 자립도를 높여갈 계획이며, 진각종은 정부 관계부처의 지원을 통해 종자, 농기구, 농업기술 등의 이전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불련의 비누공장 설립 제안을 받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후 규모와 장소 등 구체적인 실무회의를 거쳐 조불련 측과 다시 협의키로 했다. 또 북측의 평양 낙랑구 소재 땅을 제공받아 건빵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국대 개교 1백주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 불교문화재 전시회도 동국대와 평불협, 조불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참여불교운동본부**도 3월부터 월 3000켤레씩의 신발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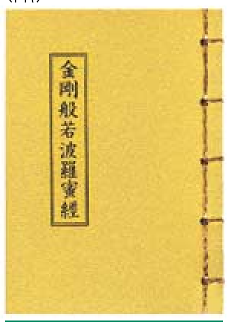
김주일 · 박봉영 · 김강진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보림선원 조실 묵산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꿈바위불교교육원 공세화 원장

시방세계 9면
포항 천주교 · 불교인 뭉쳤다
군법당서 선지식 대법회 7면
대원 스님의 반야심경 22면
'韓브랜드사업' 이란? 23면
천연재료로 청소를 27면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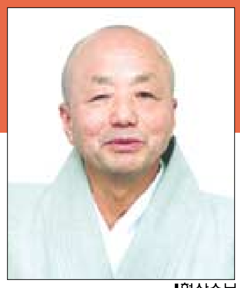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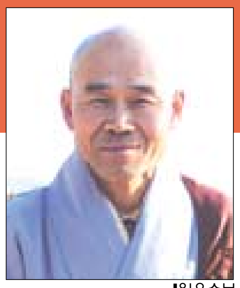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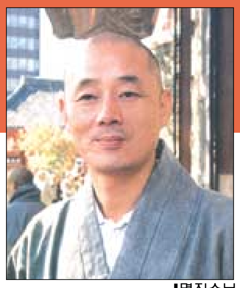
심검(尋劍)에서 울리는 사자후(獅子吼) 선원장 초청 일요법회

◆기 간: 3월5일~4월 23일 총8회 ◆시 간: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장 소 : 법왕루 ◆문 의 : 포교팀 02)3218-48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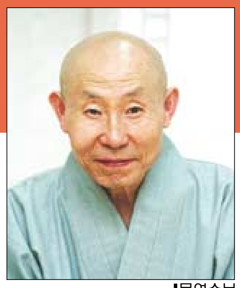
대원스님


현산스님


일오스님


명진스님

현봉스님


무여스님

지환스님

설우스님

봉은사에서는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로써 전통과 미래를 다함께 생각해보고, 참다운 마음자리와 생활속에서의 '선(禪)수행'에 대한 감로의 법문을 듣고자 선원장 스님들을 모시고 일요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회차	일시	초청법사	회차	일시	초청법사	회차	일시	초청법사	회차	일시	초청법사
1	3/5	대원스님(학림사 오등선원장)	2	3/12	현산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3	3/19	일오스님(월명암 선원장)	4	3/26	명진스님(봉은사 봉은선원장)
5	4/2	현봉스님(송광사 전 주지스님)	6	4/9	무여스님(축서사 선원장)	7	4/16	지환스님(동화사 기본선원장)	8	4/23	설우스님(법인정사 선원장)

※ 사정에 의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수도산 봉은사 회주 성암 종범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홈페이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1~5 / FAX 02)544-2141